

지역 균형 발전의 발판 마련한다

한국정책과학학회 공동학술대회 내일 전주대서 개최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추진 성과·포용국가 실현 토론

한국정책과학학회(회장 임성진)에서는 내일부터 이틀간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스타센터에서 재정분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자치행정학회, 농촌진흥청과 지방행정연구회, 전주대 사회과학종합연구소가 공동주최 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일보, KBS 전주방송국, 전주 MBC, JTJ 전주방송이 후원한다.

2019 한국정책과학학회 하계 공동학

술대회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추진전략 및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한다.

특히 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 발굴과 더불어 포용적 성장을 이룰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첫째 날인 24일 오후 1시 10분에 자치분권 전문가, 시민, 학생,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이 진행

될 예정이다. 개회식은 임성진 한국정책과학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호인 전주대학교 총장의 환영사, 송하진 도지사, 김동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등의 축사로 진행되며, 이후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진다.

한편 송재호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은 국회 일정으로 인해 영상으로 축사 인사를 대신한다.

임성진 한국정책과학회장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중간 평가를 통해 향후 추진전략과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전문적인 정책 논의의 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한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분권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분권 추진 성과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한다. 특히 재정분권 실현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째는 3개 세션 9개 분과에서 19개의 발제와 토론이 있으며, 둘째 날은 '지방자치 28년, 자치분권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만위국 대학원생 인공지능분야연구 '최우수'

전북대학교는 만위국 대학원생(Weiguo Wan·공대 컴퓨터공학부 박사과정·지도교수 이효종)이 최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 관심을 모으고 있는 딥러닝의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구체적 적용사례까지 습득할 수 있는 장으로 진행됐다.

만위국 대학원생은 이효종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한 'Deep Residual Networks for Single Image De-snowing'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현재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의 딥러닝 학습기법을 이용, 눈발 제거에 정상적인 영상으로 변환하는 기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장은성 기자



지난해 열린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자료사진.

활기찬 체육생활로 삶의 질 UP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30일 정읍서 광파르 65세 이상 노인 2000여명 참여... 9개 종목서 선의 경쟁

22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2019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이하 '2019 정읍국민체육센터체육관 등 정읍시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도내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건강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참여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총 9개 종목이 펼쳐지며, 선수와 임원 등 도내 14개 시·군에서 2000여명이 참여해 선의 경쟁을 펼친다.

종목은 게이트볼과 그라운드골프, 체조, 탁구, 테니스 등 5개 일반종목과 고리걸기와 투호, 제기차기, 윷놀이 등 4개의 민속종목으로 구성됐다.

각 종목 우승팀과 준우승팀, 3위 팀에게는 상장 등이 수여된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노래와 무용 등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끼를 발휘하는 장기자랑 시간도 주어진다.

앞서 정읍시청에서 열린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대표자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자고

입을 모았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참여 확산을 유도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종목별 경기장 점검과 대회준비요원 등 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체육회는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노인생활체육대회를 만들었으며, 실버체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장은성 기자



효율적인 수목 관리 방안에 머리 맞대

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회의 개최

전북도교육청과 시·군 지역교육청이 효율적인 학교 수목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5층 정책협의실에서 5월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 및 폐교 부지 수목 식재와 관리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이날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수목 식재 및 관리현황을 보고하고, 현행 수목관리 의뢰사항, 향후 관리방안 및 전망'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주요 건의 내용은 ▲학교기본운영비(폐교관리비)에 수목관리 예산 반영 ▲수목관리비 지원(고가치 수목관리비 별도 지원) ▲학교시설유지관리학교 확대 운영 ▲수목관리 연수 운영 및 업무매뉴얼 ▲수목관리지문단 전문가 총원 및 정기적인 자문 필요 ▲전문기관과의 업무 협약 ▲입목축 대장 등재 기준 명확화 ▲폐교를 묘포

지, 수목학습원으로 조성 등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석면 해체·제거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석면해체·제거 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특별 점검에도 공사 현장에서 가이드리인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다.

특히 ▲여름방학 중 도교육청 특별 점검반 운영(휴일 포함) ▲학교별 석면 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 철저 ▲학교와 사전협의 후 사업 범위·기간 결정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기간에는 동일건물에서 교육활동 등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건물을 사용할 경우 학부도 설명회를 거쳐 의견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일부 학교 최종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으로 학교 책임성이 지적됨에 따라 향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학교의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베트남 지방정부 감사패 받아

전북도교육청이 베트남 다크롱 지방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22일 베트남 월드비전 회장단은 도교육청을 방문, 정병의 부교육감을 접견한 자리에서 베트남 지역 학교건립 지원에 감사패를 표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북지역 학교들은 월드비전 전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지난 2014년부터 사랑의빵 동전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모금된 기금을 보내 학생 장학금과 해외 초·중등학교 건립 등에 지원해왔다. 특히 월드비전 전북지역 본부는 베트남 다크롱 지역 일대에 지난 2016년부터 지역개발사업(ADP)을 벌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7년 베트남 다반초등학교 건축에 1억4040여만원을, 2018년 베트남 이룡초등학교 건축에 1억2210여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베트남 다크롱 지방정부에서 전북후원자에게 보내는 감사의 마음을 도교육청에 감사패 형식으로 전달한 것이다.

정병의 부교육감은 "전북지역 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기금이 베트남 학교를 짓는 데 쓰였다니 매우 보람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정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양국의 우호 증진을 물론 미래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오늘 익산서 상업경진대회 개최

도내 상업계 고교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업·정보능력을 겨루는 전북상업경진대회가 23일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와 진경여고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상업·정보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상업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도내 12개 특성화고 학생과 학교

장 및 지도교사 등 총 760여 명이 참가한다.

오늘 오전 9시 원광정보예술고 강당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각 종목별 경진대회가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회계 실무, 창업실무, 비즈니스 영어, 사무행정, 전자상거래 실무, ERP, 금융 실무, 취업설계 프레젠테이션, 세무실무, UCC 경진대회, 상업경제 등 11개 경진분야에서 기량을 겨룬다.

/장은성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